

# 이탈리아 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안지성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본 연구는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건축문화재 보존정책’과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방법론적 특성’등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있어서는 MIBAC(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조직별 특성과 업무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재에 관련된 보존, 복원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상의 특성을 살펴볼수 있었으며, ‘건축문화재 보존과 복원방법론적 특성’에 있어서는 <조사, 분석>,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는 건축문화재 보존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축문화재의 보조 및 복원방법론의 실제 사례로서 ‘재난’을 극복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및 복원방법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재난에 관련된 건축문화재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건축문화재 위기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 운영체계 및 개략적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건축문화유산의 정부정책

## 1. 서론

베니스헌장(The Venice Charter: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sup>1)</sup>이 제정, 공포된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복원활동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Jokilehto, 1986: 42). 특히, 건축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복원활동은 각 국가별 사회와 역사를 비롯한 인문·사회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의 변화 등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Torsello, 2005: 18). 이와 같이 각 국가별 건축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 속에서 행해지는 보존과 복원활동들은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은 최소화하고, 대상물이 지닌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원칙하에 수행되었으며, 각 국가별 건축문화재 기술지침을 비롯한 관련정책들을 통하여 그 노력의 흔적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건축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원형보존’을 관련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술적 지침과 표준화사업이

1) 고대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의 국제적인 지침으로 활용되었던 아테네헌장(1931년)을 기초로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ICOMOS(유물과 사적 국제 심의관)의 국제기구의 협의를 새롭게 정비된 형태의 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국제헌장으로서, 1964년 5월25일 베니스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역사적 기념물의 건축가 및 기술자들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음.

2) 건축 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정의되어 왔으나, 공통적으로 ‘한번 훼손된 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는 영원히 소멸되며 회복될 수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수행되어 왔고(Musso, 2004: 117), 건축문화재의 관리 시스템개발 및 '재난'에 대한 예방과 처리차원에서의 매뉴얼 개발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왔다(Mazzolani, 1992: 6-7). 이러한 이탈리아 정부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기술적인 연구 성과들과 이를 토대로 한 관련정책은 영국, 독일, 미국 등 일명 문화강대국이라 불리는 선진국가들로 하여금 우수 사례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건축문화재의 보존 체계가 '위기'의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건축 문화재의 보존정책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문화재 보존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례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보존정책과 방법론적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재난'에 대한 예방과 처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건축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며 셋째, '재난'을 극복한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복원사례를 통하여 국내 건축 문화재의 보존, 복원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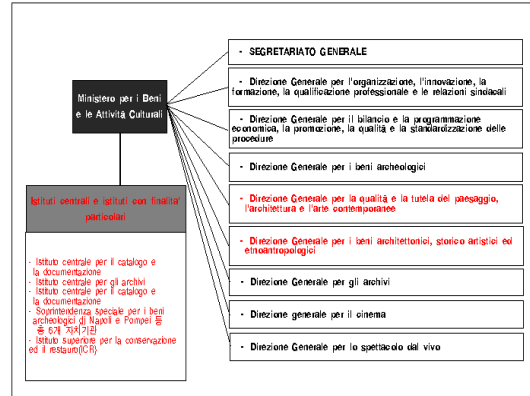
### 1.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의 특성

#### 1)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sup>3)</sup>'와 관계기관의 구조적 특성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보존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관인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홍콩하고 활동적인 문화를 위한 정부부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기관의 성격상 MIBAC는 건축문화재를 비롯한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경관자원, 회화작품, 고고학적인 기록문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복원, 관리에 대한 관련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이들 활동을 관리, 감독하며, 각종 문화유산의 보존,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에

3) 이하 'MIBAC'라 표기함.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부사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의 각 부서별 현황 및 건축문화유산 관련 담당부서 현황(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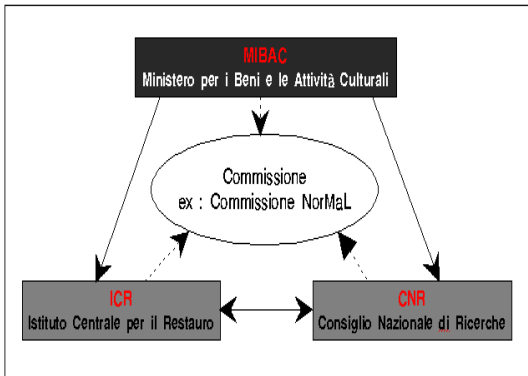
MIBAC는 2008년 현재 총 10개의 부서<sup>4)</sup>가 각 분야별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들의 집행에 대한 계획과 사전검토, 그리고 관리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Istituti Centrali e Istituti Con Finalita' Particolari<sup>5)</sup>> : 문화유산 중앙 집행 기관과 특별기관>가 설립, MIBAC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MIBAC와 IC&ICFP는 상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소위원회(Commissione)'의 설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IC&ICFP의 산하부서인 <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sup>6)</sup>>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정책의 사전검토와 집행계획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0개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존치를 법적으로 의무하고 있음에 따라서, 10개부서의 각 지자체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http://www.beniculturali.it> 참조).

5) 이하 'IC & ICFP'라 표기함.

6) 이하 'ICR'이라 표기함. 1939년 이탈리아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분야의 개척자인 'Cesare Brandi'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 시행되었던 정부부처의 '혁신화정책'에 따라 2008년 현재에는 <Istituto Superiore per la Conservazione ed il Restauro>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일반적으로 ICR(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이들 기관 이외에도 국가기술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인 <Consiglio Nazionale di Ricerche><sup>7)</sup>이 존재하는데, 이 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수집, 연구되었던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평가지표개발’과 그에 따른 ‘표준화·기록화사업’과 같은 정책적 기준과 이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이탈리아 정부 건축문화유산 보존관련 주요정책 수립기관의 구조

특히, 그동안 이탈리아정부의 건축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MIBAC, CNR, 그리고 ICR은 국가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결과물을 도출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결과물이 UNI-Normal<sup>8)</sup>이다. 여기서 UNI-Normal이란, MIBAC, ICR, CNR에 의해서 개최되는 ‘Commissione NormMaL (특정분야의 소 위원회의 형태)<sup>9)</sup>’을 통하여 제정된 표준 지침으로서, 건축문화재의 ‘훼손상태에 대한 진단학(Diagnostic)<sup>10)</sup>’적 접근에 있어서 활용되는 <분석기법

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훼손상태 평가지침>등 건축문화재에 대한 <조사-분석-기록>과 관련된 ‘표준지침’을 가르키며, 대표적으로 ‘Raccomandazioni NormMaL<sup>11)</sup>’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이 ‘Raccomandazioni NormMaL’과 같은 표준지침의 작성과 적용은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Soprintendente’의 활용을 통한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관리체계

<Soprintendente>란 ‘문화재 전문감독관’을 지칭하는 말로서, 건축문화재보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이탈리아 공무원 직제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문화재의 보존에 있어서 이들 <Soprintendente>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며, 건축문화재의 조사, 분석, 계획과 설계, 시공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부처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oprintendente>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의 직제 상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문화재관리부서에는 담당 기능이 있는 제도로서, 건축, 문화재보존 그리고 고고학 분야에 대한 5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와 5년 이상의 현장경험 없이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축문화재 ‘최고의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주로, 정부의 건축문화재 관련정책들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MIBAC, ICR, CNR에 수립된 구체적인 ‘표준지침’의 현장적용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축분야에서의 진단학은 주로 대상건물의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초기분석과정에 사용되며, 물리·화학적 분석기법을 수반하는 학문분야라 할 수 있음(Giusti, 1988: 14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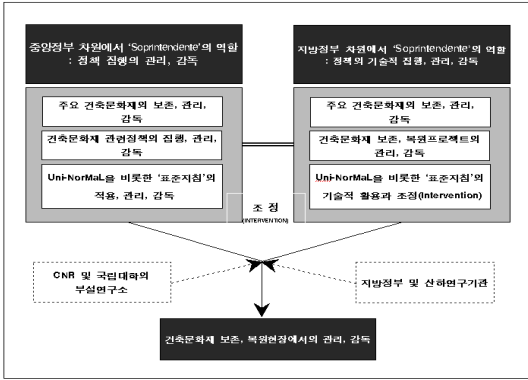
11) 198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석재에 대한 기초지식 (Conoscenza del materiale lapideo naturale)’를 비롯하여 총 5개 대분류에 의한 ‘기준과 원칙 등에 관련된 표준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08년 현재까지 약 60여개의 표준지침이 제정,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나 내용의 수정, 보완이 요구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계량화하고 있음.

7) 이하 ‘CNR’이라 표기함.

8) 여기서 ‘UNI’는 ‘통합’, ‘일치’를 뜻하는 단어의 약어적인 표현이며, ‘Normal’은 ‘Norme(광범위한)’와 ‘Materiale(재료)’의 합성어로서 ‘광범위한 자료’를 일컫는 말임. 이 둘 두가지 의미를 토대로 굳이 해석하자면 ‘광범위한 재료의 통합지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임.

9) UNI-NorMaL의 제정과 그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운영은 미국의 국가유산보존위원회인 AIC(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의 모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0) 진단학(Diagnostic)은 의학분야에 기원을 둔 학문분야로서, 건



〈그림 3〉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분야에서의 Soprintendente의 역할과 그에 따른 관리체계의 특성

특히, 정부차원에서 수행되는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 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조정자’로서 <Soprintendente>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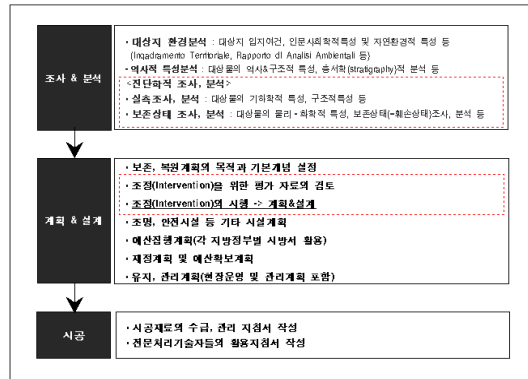
2.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의 방법론적 특성

일반적인 건축계획적 접근방법이 <조사&분석-계획&설계-시공>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지는 것처럼,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접근방법 역시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수행된다. 단, 대상물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화재이며, 원형보존을 위한 계획적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초기조사와 분석단계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전문분야가 바로 ‘진단학(Diagnostic)’과 ‘층서학(Stratigraphy)’<sup>12)</sup> 등의 학문분야이다(Matteini, 1984: 31).

한편, 일반적인 건축계획과 설계가 디자인적 관점에서 대안의 작성위주로 진행된다면, 건축문화재의 보존, 복원계획과 설계는 시공의 전 단계에 대한 ‘조정(Intervention)’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대상 건축문화

재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보존 혹은 복원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처리과정(존치, 제거, 강화 등)과 기법’등 대상문화재의 처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Musso, 1997: 489), 이때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그림 5>부터 <그림 9>까지<sup>13)</sup> 참조)는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자료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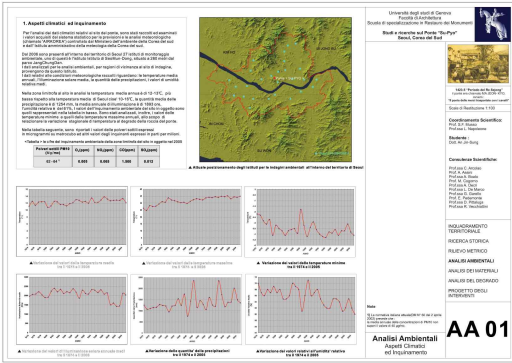
한편, 앞서 언급하였던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복원정책’의 가장 큰 특성으로서 ‘평가지침 등 정부차원에서 수행되는 ‘표준지침의 활용(표준화 제도)’과 ‘Soprintendente 제도의 전문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에 대한 접근체계(<그림 4>)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존, 복원의 접근체계에 있어, Soprintendente가 전문적 지식과 권한을 바탕으로 건축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정자’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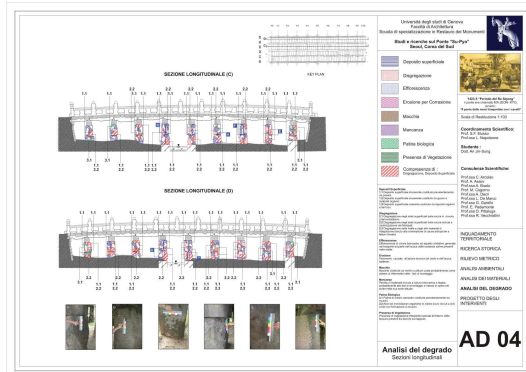
〈그림 4〉 건축문화재의 보존, 복원 과정 및 접근체계(모든 과정은 Soprintendente의 평가가 수반됨)

12) 층위학(層位學)·지층학(地層學)으로도 불리며, 사전적 의미로 ‘지층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될 수 있음. 역사적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흔적마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각 부분별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13)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론에 대한 예시로 사용된 분석도면은 ‘수표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자의 최종학위논문(An Jin Sung, Studi e Richeche sul Ponte di Su-pyo, seul, Corea del Sud, Universita’ di Genova, 2007)에서 발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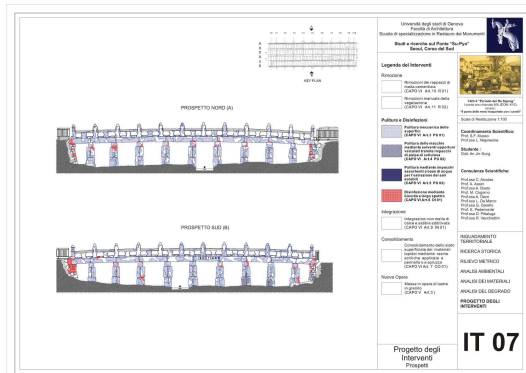
<그림 5>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론 예시 I : 자연환경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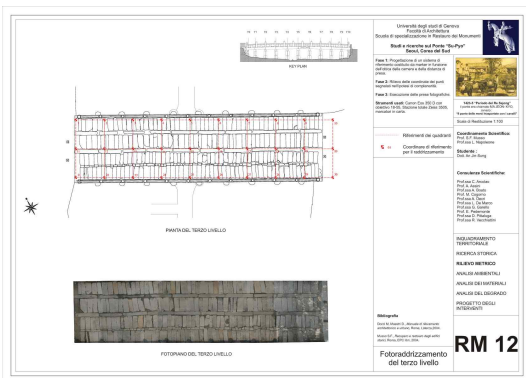
<그림 8>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론 예시 IV : 훼손상태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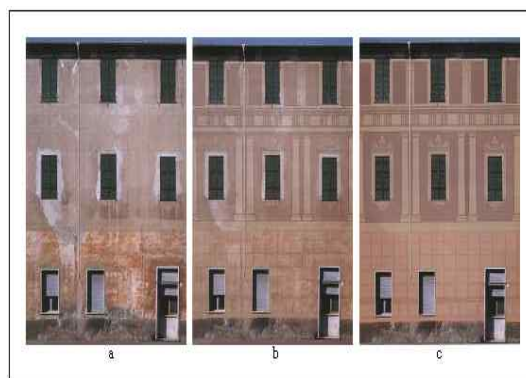
<그림 6>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론 예시 II :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도



<그림 9>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론 예시 V : 조정(Intervention)



<그림 7>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론 예시 III : 사진촬영을 통한 실측 및 기하학적 분석도



<그림 10> Palazzo Ducale in Genova 의 동측벽면 보존처리 과정의 예시



〈그림 11〉 Chiesa di Jesu in Genova 의 중앙벽면 복원 프로젝트 예시



〈그림 12〉 Castello di Genova의 복원프로젝트 예시

혹자는 이탈리아의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방법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정성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적인 측면에서 외형에 치우친 보존, 복원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들은 Maria Piera Sette(2001: 121), Paolo Torsello(2005: 54) 등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학계를 이끌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다분히 예술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서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과학적인 접근방법론에 의한 문제제기와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 방법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원형보존원칙’ 하에 ‘진단학(Diagnostic)’, ‘층서학(Strtigraphy)’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Jhon Ruskin이 그의 저서 “The Stones of Venice(1853)”에서 “복원은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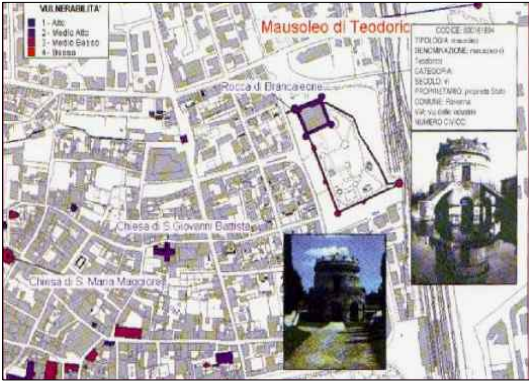
사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분히 지루한 작업과정을 거치게 되나, 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와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탈리아식 보존, 복원방법론의 특성은 ‘완벽한 거짓말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재난’에 대한 건축문화재 관리체계 :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에 대한 이해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인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 문화유산에 대한 위기지도<sup>14)</sup>>는 이탈리아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존체계의 깊이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ICR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Carta del Rischio>는 1975년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의 ‘위기<sup>15)</sup>’에 대비한 건축문화재 관리계획인 <Pilot Plan for Programmed Conservation of Cultural Assets in Umbria>구축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당시의 일차적인 시스템체계(자료의 단순집과 단순입력)에서 ‘통계적 수치와 지형학적 입력값을 지닌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Coppi R, 1997: 75). 현재의 시스템은 1992부터 4년동안 개발, 구축하였던 초기 운영체제에다가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의 운영체계를 병합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고, 이탈리아의 총 20개주와 108개의 지방정부 8103개의 도시지역에서 약 57,000여개의 문화유산(고고학적 유적지와 건축문화재 포함)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목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에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련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14) 이하 ‘Carta del Rischio’로 표기함.

15) 여기서 위기관 자연적환경적 요소와 인간의 직·간접적인 행위에 의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음.



〈그림 13〉 Comune di Ravenna 지역의 초기(1992-1996년) 모델의 <Carta di Rischio>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는 <Carta del Rischio>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수집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표로서 ‘구조상의 위기요소’, ‘환경오염에 따른 위기요소’, ‘인간활동에 의한 위기요소’ 등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수치정보’와 ‘지형학적 정보’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중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표로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위기요소’와 ‘문화재 자체의 취약점’에 관련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수직·수평적 구조’, ‘지붕’, ‘경사구조물’, ‘장식요소’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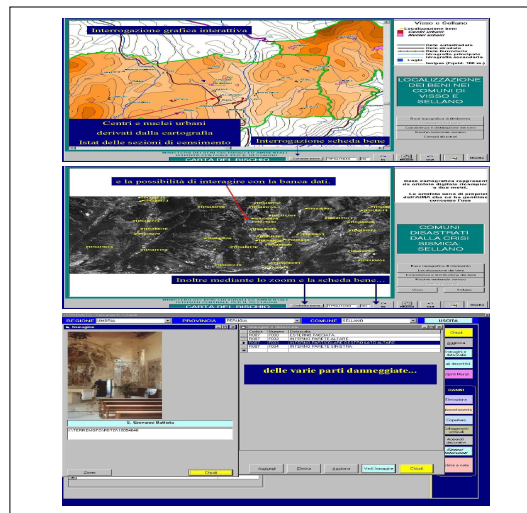


〈그림 14〉 <Carta del Rischio>의 건축문화재 관련 지표예시

〈표 1〉 <Carta del Rischio>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지표

구분	내용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	구조상의 위기요소	지진, 산사태, 눈사태, 해일, 화산활동, 홍수
	환경오염에 따른 위기요소	부식(Erosione), 물리적 훼손
	인간활동에 의한 위기요소	인구감소 및 증가, 관광객의 이용, 범죄발생의 빈도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표	지역차원에서의 위기요소	지진, 대기오염(환경), 인간의 훼손
	문화재 자체의 훼손정도	건축물의 수직·수평적 구조, 보존상태(=훼손상태) 등

위와같이 MIBCA와 ICRDP 의하여 구축된 <Carta del Rischio>시스템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재난’ 예방차원에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각각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수행하고,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sup>16)</sup>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안전관리계획 시 간주해야 될 요소들을 계량화하거나 지역개발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계획 그리고 재난발생시 ‘지역차원에서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ordaro M & Baldi P, 1987: 129-130).



〈그림 15〉 2005년 제작된 <Carta del Rischio>의 예시

16) <Carta del Rischio> 시스템은 2008년 현재까지 주로 Rome를 비롯하여 Naples, Ravenna and Turin 등 4개 지역만을 중심으로 구축,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IV. ‘재난’을 극복한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복원사례

##### 1. 'Teatro la Fenice in Venezia'의 복원

1996년 1월 29일 베니스의 <불사조 극장 : Teatro la Fenice in Venezia>은 1792년 축조되었으며, 두 번의 화재사건을 겪으면서 재 축조되었던 대표적인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초기의 화재는 1836년 12월 13일 발생되었는데 화재로 인하여 극장내부의 벽면구조와 상층부 기단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 보존작업이 1837년부터 1840년까지 약 3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7)</sup>. 두번째 화재는 1996년 1월 29일 발생되었고, 1836년에 발생하였던 화재에 비하여 그 피해 규모가 커서 붕괴에 이르게 되었고(그림 16,17참조), 2004년 8월 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일반에게 공개, 활용되고 있다.

<불사조 극장>의 화재는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상설계’와 ‘복원계획’에 관련된 시민들의 의향조사’ 등을 통하여 그 관심과 흥미를 유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998년 5월 27일 지방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전담위원회의 구성과 ‘현상설계’공모는 <불사조 극장> 복원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모든 과정은 건축문화재복원가인 Aldo Rossi에 의하여 총괄되었다. 2001년 1월 29일 복원공사가 수립되기 전까지 5년 동안 수 차례의 복원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복원에 관한 기본전략을 체계화하였고(Rossi, 2002: 7-11), 이와 동시에 화재현장에 대한 보존작업과 잔존하고 있는 건축 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1년 1월 최종의 복원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5년 동안의 진행되었던 보존작업과 부재 처리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처리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건축물의 구조’와 ‘내부 장식물’ 등 총 6개 항목의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부재의 보존상태 평

가’와 ‘평가결과들에 대한 기록화 단계(평가결과들은 1:20 혹은 1:50의 스케일을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도면화됨)’로서, 이들 두 단계를 거쳐 수집된 최종자료는 복원 계획에 있어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Fabbri, 2005: 37). 이와같이 5년 동안의 수행되었던 화재 부재의 처리와 그에 대한 보존상태의 평가작업은 ‘베니스 시 당국의 특별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관리, 감독되었으며, 건축가와 엔지니어, 문화재복원 전문가, 그리고 문화재 전문감독관(Soprintendente) 을 비롯한 총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16> 1996년 1월29일 화재당시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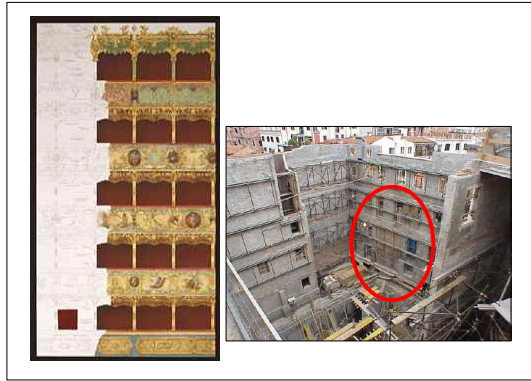


<그림 17> 1996년 1월29일 화재당시 현황사진

<불사조 극장>복원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을 통한 복원’이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총 5개 훼손부분에 대한 복원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총 19번의 컨퍼런스와 전

17) 베네치아 기록보존소(Archivio di Stato di Venezia).

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최종의 ‘조정 (Intervention)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Rossi, 2002: 19). 2001년 1월 29일 최종 복원작업의 착공식에서 당시 베니스의 시장이었던 Paolo Costa가 역설 하였던 ”불사조(Fenice)는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의 인사말처럼 <불사조 극장: Tearto la Fenice in Venezia>복원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고, 오늘날 베니스 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20> 공연석 벽면장식 부분의 보존상태 평가도(왼쪽)과 동 부위의 시공현황(오른쪽)



<그림 18> 극장 내부 벽화의 불순물 제거과정



<그림 21> 극장내부 벽화의 복원처리과정



<그림 19> 극장내부 벽화의 보존처리과정



<그림 22> 극장내부 천정벽화의 복원처리과정



<그림 23> 붕괴된 천정부분의 복원공사 현황



<그림 24> 관람석부분의 목재구조공사 현황



<그림 25> 'Teatro la Fenice in Venezia' 출입부 벽면의 복원 전(왼쪽/1808년~1811년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과 복원 후(사진)

2. 'La Basillica di S. Francesco in Assisi' 복원

이탈리아 아씨시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

코 대성당 : La Basilica di S. Francesco>은 제2의 예수라 불리우는 프란체스코(1181-1226)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당으로서, 1253년 당시 교황인 Innocenzo IV(1253)에 의하여 축조되었다. 성당 내부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라 할 수 있는 Giotto(1267-1337)의 프레스코화가 위치해 있고, 대 성당은 후정과 전면광장을 연결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바티칸 건축양식을 띄고 있다(Siome, 1994: 109-110). 관련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은 지진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일어난 1997년 9월 26일(오전 2시경) 이전까지 총 6번의 부분적인 보수와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지진처럼 대성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역사적 재난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26> 1997년 9월 26일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 La Basilica di S. Francesco>의 천정부분 붕괴과정

1997년 9월 지진으로 인한 대성당의 붕괴는 성당 천정에 2곳과 내벽 3곳, 외벽 4곳의 부분적인 붕괴를 가져왔으며, 지진발생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된 복원사업은 총 9곳에 대한 보존공사와 복원공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당 내부에 장식되어 있는 2곳의 천정벽화와 프레스코화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중요시되었던 만큼 당시 이탈리아 예술계에서 화두가 되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보존과 복원에 대한 결정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erio, 2003: 68).

1997년 10월 아씨시 지역의 카톨릭 교구장과 문화재 전문감독관(Soprintendente), 그리고 MIBAC 담당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대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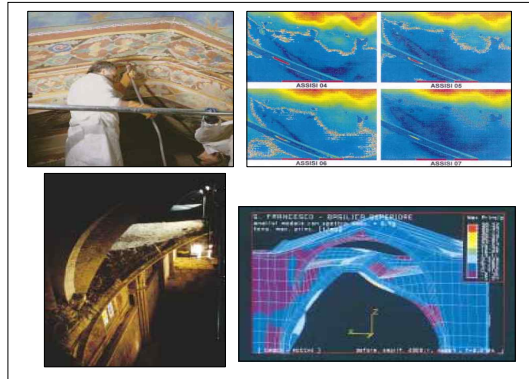
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 본격적인 처리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복원사업의 시작과 함께 일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작업은 천정벽화의 붕괴에 따른 벽화조각에 대한 수집과 보존처리였는데, 이러한 작업과정들은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향후 ‘파편에 대한 재구성’과 복원작업에 있어서는 ‘진단학(Diagnostic)’적인 분석과 다양한 과학적 측정, 복원기법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그림 27> 1997년 9월 26일 지진으로 인한 <성 프란체스토 대성당:La Basilica di S. Francesco>의 붕괴현황



<그림 28> 붕괴된 천정벽화 잔여물의 수집, 관리, 그리고 재구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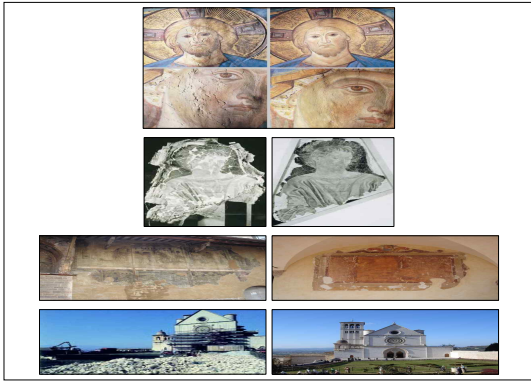


<그림 29> 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훼손도



<그림 30> 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훼손도

실질적인 복원처리에 있어서 ‘조정(Intervention)’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천정벽화(건축적 장식물 포함)’의 복원과 ‘붕괴된 벽면’에 복원 초점이 맞춰졌는데, ‘천정벽화(건축적 장식물)’는 파편의 재구성을 통한 및 복원처리, 그리고 ‘붕괴된 벽면(건축구조물)’은 훼손상태의 분석을 통한 부분적인 복원을 골자로 하는 기본원칙을 수립, 이에 따른 복원공사가 수행되었다.



<그림 31>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La Basilica di S. Francesco>의 복원프로젝트 전(왼쪽)과 후(오른쪽)

한편, 복원사업의 전 과정의 관리, 감독은 이례적으로 해당 지방정부가 아닌 정부 중앙기관인 CNR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의 역사적 가치와 성지로서의 존엄성이 반영되었던 결과라고 기록되고 있다(Serio, 2003: 81-93). 이와같은 철저한 관리, 감독의 결과로서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복원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이탈리아 정부에서 수행되었던 수많은 건축 문화재 복원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받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건축문화재 보존, 복원에 대한 철학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V. 결론

이탈리아는 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과학적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Venice현장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들이 국가 문화유산 보존정책에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보존, 복원정책의 특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문화재 보존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보존, 복원정책의 특성으로는 'Raccomandazioni NorMaL'과 같은 건축문화재의 보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의 <표준화제

도>'와 'Soprintendente(문화재 전문감독관)'과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건축문화재 관리의 <전문화>'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건축문화재에 관련된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Soprintendente(문화재 전문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 건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측면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둘째, '재난'에 대한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대표적인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문화유산에 대한 위기지도>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처방안으로서, 건축문화재 '보존상태(=훼손상태)평가' 등 현황자료의 중요성과 자료의 수집, 관리체계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문화유산에 대한 위기지도>의 시스템 자체가 지리정보체계(GIS)에 기반으로 하고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분야의 기술과 정보수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국내로의 적용과 개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재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복원사례로서, <불사조 극장: Teatro la Fenice in Venezia>과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La Basilica di S. Francesco>을 살펴본 결과, 건축문화재 복원과정에 있어서 '조정(Intervention)과정'의 중요성과 이들 '조정'의 기준이 되는 '부재에 대한 보존상태 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건축문화재 복원기법이 집약되었던 실제 복원사례를 통하여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복원철학 즉 '건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원형보존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안전성, 진단학을 적용한 수표교의 훼손상태조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 ▷ Accardo G. 1998. *Dati geostatici e patrimonio storico artistico*, in "Mondo GIS" Anno III - n°12. Accademia Nazionale dei Lincei.
- ▷ Accardo G. 1998. *La Carta del Rischio e il sisma: per un piano di prevenzione nazionale*, in "Gli interventi sul Patrimonio Monumentale ed Artistico dopo il sisma nell'Umbria e nelle Marche", atti del seminario 22-23.

Accademia Nazionale dei Lincei.

- ▷ Aldo Rossi. 2002. *Progetto del Restauro : Ricostruzione di Teatro Felice*. Utet.
- ▷ Campora Siome. 1994. *La Storia di Basilica di S. FRANCESCO*. eT libri.
- ▷ Coppi R. 1997. *Metodologia per la costruzione di modelli di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 in La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 (a cura di G. Castelli)*. ICR – Bonifica.
- ▷ Cordaro M. & Baldi P. & Vaccaio A. 1987. *Per una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 in Memorabilia: il futuro della memoria, Ministero per i beni culturali e ambientali*. 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
- ▷ Elisabetta Fabbri. 2005. *Il Teatro della Fenice : Mostra sulla Ricostruzione Artistica*. istituto Veneto di Scienze.
- ▷ F. M. Mazzolani. 1992. *Nuove Strategie di Conservazione per Edifici Monumentali*. Celid.
- ▷ Jukka Jokilehto. 1986.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D.Phil Thesis University of York.
- ▷ M. Serio. 2003. *Progetto di Restauro : La Basilica di San Francesco in Assisi e Primi Avanzamenti*. Utet.
- ▷ Maria Adriana Giusti. 1988. *Temi di Restauro*. Celid.
- ▷ Maria Piera Sette. 2001. *il restauro in architettura*. UTET.
- ▷ Mauro Matteini. 1984. *Scienza e Restauro*. Nardini Editore.
- ▷ Paolo Torsello. 2005. *Che cosa e' restauro*, Marsilio.
- ▷ Stefano F. Musso. 1997. *Recupero e Restauro degli edifici storici*. EPC libri.

---

**安鎮景:** 이탈리아 국립제노바대학 건축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진단학을 적용한 석조문화재의 보존과 복원기법연구), 현재 디자인그룹 LAPEX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환경계획 및 설계, 건축문화재보존 및 복원설계 등이다(ajs0742@paran.com).

**접수번호:** #081030-03

**접수일자:** 2008. 10. 30.

**심사완료:** 2008. 12. 07.